

서구학교 불교강의, 동아리 개설 '붐'



◁지난 4월 11일 한미음선원 독일지원에서 열린 독일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 9학년 학생들의 타종교(불교) 방문수업증 다도체험 장면.

학생들 요구에 증가 추세

인근사찰 방문 특강 갖기도

심신의 안정 찾을 수 있어 인기

중·고등·대학교에서 가장장삼을 두른 스님을 지도교사 또는 교수로 만난다?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이 아닌 유럽, 미국 등 서양의 학생들이 선택 혹은 필수 과목으로 스님의 지도를 받는 모습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서구 학교 내에서 명상을 비롯한 불교 강의가 정규 수업과정으로 생겨나고, 학생들의 불교동아리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의 건전한 조화를 위한 학교 측의 배려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 웨일스 남부의 카디프 시는 올해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롭카(Ropka)'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다. 도움과 보시를 의미하는 티베트어에서 이름을 따온 롱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명상 등 불교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002년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West Point Academy)에서는 명상을 주제로 한 마하리쉬 대학교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매일 두 번의 명상시간을 마련했다.

독일에서는 명상과 같은 수행법만이 아닌 부처님의 생애, 교리 등을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불교수업이 정규과목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베를린의 공립학교 사로텐버그(Charlottenburg) 존레는(John Lennon) 김나지움에서는 지난 8월부터 중2 학생들에게 불교의 자비와 관용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불교를 교과시간에 편성했다. 또한 독일 뒤셀도르프의 알버트 아인슈타인 김나지움(Albert-Einstein Gymnasium)의 학생들은 지난 4월 종교 수업의 일환으로 인근 한미음선원 독일지원을 방문해 선차(禪茶)를 체험하고 스님과 문답을 하는 등, 불교 특강을 갖기도 했다.

캠퍼스에 명상과 불법의 기쁨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 뉴멕시코 대학(UNM)의 제니퍼 헤이그(Jennifer Haig) 양은 얼마 전 학생 명상 모임을 조직했다. 그는 "학생들의 일과는 스트레스와 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며 "명상 모임의 목적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명상을 통해 정신적 피로를 떨쳐내고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자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모임을 지도하는 켈상 고펜(Kelsang Gomlam) 스님은 "학생들이 학업 등에서 비롯된 과도한 압박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른 삶을 한층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라며 학생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학생들 또한 수업을 통해 명상을 접한 뒤 긍정적인 반응이다. 뉴멕시코 대 3학년 스테판 갈빙 밀러 군은 "명상은 하루 중에서 휴식을 취하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점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준다는데 있죠"라고 명상수업을 극찬한다. 이처럼 서구의 학교에서 명상 등 불교강의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데 있다. 몸과 마음이 피로한 그들에게 불교의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해 예민한 시기의 사춘기 학생들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에 전문가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불교수업은 청소년의 탈선을 막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라고 분석한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세계의 불교학 연구현장

④ 컬럼비아 대학 종교학과

"이 경전은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에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 재산 소유는 종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종교가 물질에 좌우된다는 뜻인가요? 종교의 영성을 파 소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15일 미국 컬럼비아대학 해밀턴 홀에서 열린 데이비트 바이스 할리버니 교수의 종교학 강의 시간.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은 여학생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유대인 남학생은 곧바로 소유 문제에 대한 유대교의 의견을 제시하자 토론은 더욱 뜨거워진다. 올해로 개교 250주년을 맞은 미 동부의 명문사학인 컬럼비아대학(www.columbia.edu).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맨하탄의 입터운에 위치한 이 대학은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한편 언론, 법학, 의학 등 개성이 강한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티베트 불교 연구 권위, 로버트 쉘만교수 대표

종교-언론 과정 편성 등 실용 측면 돋보여

이중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 이 대학 종교학과는 아이비리그 소속 대학으로 알려진 컬럼비아 대학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전통이다. 티베트 불교 연구가 강점인 종교학과는 1754년 대학 설립 이후 신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컬럼비아 대학의 인문학을 한층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특히 로버트 쉘만(Robert Thuman) 교수는 컬럼비아 대학 불교학의 발전을 상징하는 인물. 98년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에 선정된 그는 티베트 불교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이밖에 일본 및 중국 종교학 연구자인 루이치 아베(Ryuichi Abe) 교수, 산스크리트 연구자인 캐리 튜브(Gary Tubbs) 교수 등도 컬럼비아 대학 종교학과 소속 불교학자들이다. 학부 과정에서 불교학은 종교학과와 한 분야로 취급되며, 본격적인 불교학의 연구는 대학원 석, 박사 이상의 과정에서 시작된다. 기독교학, 이슬람교학, 유대교학 등 종교학과 함께 연구되기 때문에 불교학 연구는 비교종교학적 성격을 띠며 역사, 문화, 철학 등과 관련된 학제간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 대학 풀러턴 언론대학원과 함께 종교-언론학 석사 과정 프로그램이 편성되는 등 종교학을 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교와 미국 문화 △종교와 현대사회 △종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종교의 사회학 △미국 종교 연구의 주제와 불교학 문헌 등 개설된 여러 강좌에서도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접근 태도가 엿보인다.

종교학과장 루이치 아베 교수는 "컬럼비아대 종교학과는 동서양의 문화, 언어, 철학, 역사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종교학의 서로 다른 전통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뉴욕=강유신 특파원



◁컬럼비아대 종교학과 학생들이 데이비트 할리버니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다.

서양 종교 위기

'뉴욕 타임즈' 13일 보도

유럽 상대 기독교세 분석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 발전에 영향을 미친 서양 종교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때 번성했던 서양 종교의 쇠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재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에서 약화되고 있는 기독교세를 분석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매주 일요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도

는 프랑스에서는 20명에 1명 풀이며, 영국에서는 2천 5백만 명의 기독교인자 중 1백 20만 명만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척교회연합 영국지부의 서기장 데이비드 폴니 박사는 "서구 유럽에서 가톨릭의 교세는 매우 약화됐다"며 "사실상 유럽에는 기독교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이 탈리아의 신학자 엔조 비아니 박사는 "불교, 힌두교, 뉴에이지 정신, 소비정신 등의 경쟁대상들로 인해 교회는 더욱 설자리 잃어간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 '현자위' 구성 제안

달라이 라마는 10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철학자·종교지도자 회의'에서 국제위기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현자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 라마는 "전쟁 등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일어나는 대규모 평화시위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하벨 전 체코대통령과 같은 분들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철학자 등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 지도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폭력과 전쟁을 막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7일부터 보름여의 일정으로 유럽 순회길에 올라 스페인, 프랑스, 독일, 체코 등을 방문했다.

쉬린 에바디 노벨 평화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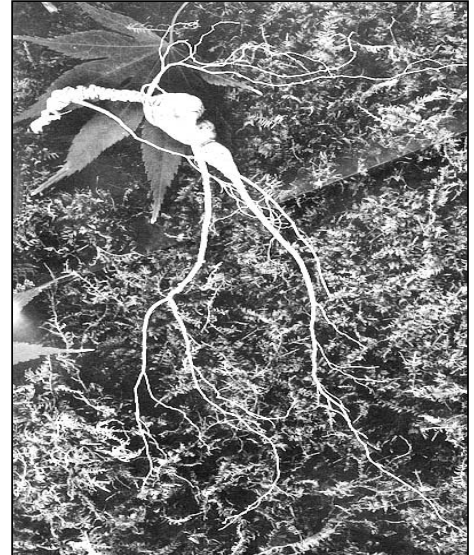
이란의 작가 겸 여성 인권변호사인 쉬린 에바디(Shirin Ebadi, 56·사진)가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에바디는 이란의 첫 노벨평화상 수상자이며 역사상 11번째 여성 수상자이다. "이란 여성들의 비공식 대변인", "이란의 강철 여인" 등의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 그녀는 독실한 이슬람 교도로 이슬람의 근본정신과 인간의 기본권 사이에는 충돌의 점이 없다는 믿음으로 인권운동을 전개해 왔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蓼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몰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중 中藥 1207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7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蓼는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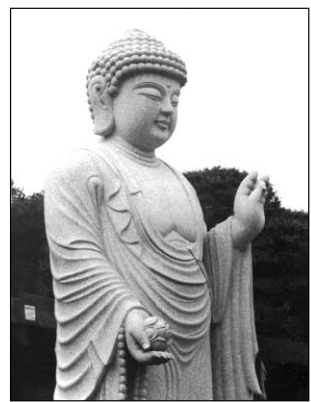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蓼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蓼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敬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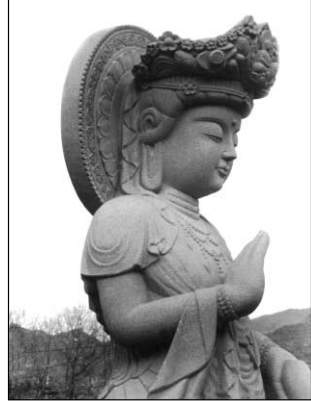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山蓼 長腦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